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③

간경(看經) 수행

자꾸 읽다보면 뜻 드러나

부처님의 현신(現身)이나 다름없는 경전. 그래서 경전은 법보(法寶)라 한다. 법보를 외면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육조 혜능 스님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금강경> 구절을 듣고 단박에 느낀 바가 있어 출가를 했다. 그리고 스승에게 인가를 받는 자리에서 <금강경>의 대의를 전수 받았다. 경전공부 즉, 간경(看經)은 수행자에게 깨달음의 기원을 던져준다.

간경수행의 원리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경전을 읽어야 할까? ‘읽고 깨달아 진리의 실상을 바로 보라’는 간경수행. 5월 24일, 간경수행자 조희준(49·원화), 박미경(49·김상화) 씨가 대한불교보림회장 성상현 법사를 찾아 간경수행의 요체를 들었다.



대한불교 보림회 성상현 회장(왼쪽)이 <능엄경> 경전읽기에 대해 박미경(중앙), 조희준 불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경전에서 진리의 실상을 본다

조희준 씨의 첫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간경은 왜 읽을까?”

“부처님의 의취(義趣), 즉 부처님이 정말 표현하고자 한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요. 물론 처음에는 글자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겉도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전을 자주 읽고 들으면 그 뜻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부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져 나중에는 내가 불법에 감화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간경을 어떻게 읽을까

“반야심경”을 10년 넘게 아침마다 읽고 있다는 조희.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경전은 너무도 많습니까. 한 권의 경전 정도는 외면 좋다고 하는데, 분량이 많은 경전은 외기가 힘듭니다.”

“그냥 읽고 외면 그것은 지식일 뿐이예요. 가령 <금강경>을 다 읽은 사람에게 <원각경>을 외라 하면, 급세 <금강경>은 다 읽어버리게 돼요. 한 경전을 다 읽다 그 다른 경전을 동시에 외기는 어렵지요. 그럼 안 읽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경에서 진리의 실상(眞實相)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중생제도와 왜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경구가 있다면, ‘내 안 있는 자성자리를 비추주겠다’는 말로 그 진실상을 드러내야 해요.”

#선지식에게 묻고 또 물어라

올해 초부터 매일 아침 <법화경> 사경과 함께 간경수행을 시작한 박미경 씨가 경전 읽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려운 불교용어, 난해한 번역문 등이 초심자에게는 간경수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경을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경이 어려운 이유는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부처님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안목을 키우려면, 반드시 선지식에게 법문을 청해 들어야 해요. 또 스스로 읽고 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경삼매에 들어 뜻이 저절로 명확해지고 환해집니다. 육조 스님이 ‘모든 경전은 하나로 관통된다’는 말처럼, <아함경>에서 <열반경>에 이르기까지 간경을 하면, 참선 못지않은 독경삼매를 경험하게 돼요.”

#박 씨가 끈장 다시 질문을 던졌다.

“간경을 잘 하려면, 선지식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전에 통달한 스승을 만나야 해요

경을 완전히 이해해 뜻을 열어 보이고(開示), 깨달음에 들어간(悟入) 스승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가령 <금강경>을 달달 외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상(相)을 여의지 못하고 아반심만 가득 차 있다면, 스승은 그에게 하심(下心)의 도리를 가르쳐 줘야 해요. 스승은 수지독송을 통해 이런 이치를 알려주는 거죠.”

#‘나’ ‘여기’ ‘지금’의 마음자세로

“어떤 자세로 간경을 해야 할까요?” “경전을 ‘남의 것’ ‘저기’ ‘옛날 글’로 여겨 읽으면 안 돼요. 그것은 불교도 아니고, 간경수행도 아니예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내 것’ ‘바로 여기’ ‘지금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읽어야 해요. 그러면 여설수행(如說修行)의 자세가 갖춰져요. 즉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읽고 외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조씨가 간경수행의 주의할 점을 묻자,

성 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경을 잘못 읽으면 경이 나를 굴리게 돼요. 내가 직접 경을 굴림 줄 알아야 해

요. 그런데 흔히들 경에게 굴림을 당하죠. 경을 읽는 상이 가득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행을 위한 간경은 전경(轉經)이 돼야 해요. 경을 읽고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경에 통달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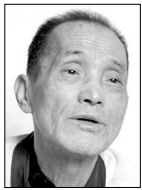
2시간 남짓 진행된 문답. 성 법사는 마지막으로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教外別傳)’을 강조하는 선수행 풍토가 간경수행을 낮춰보는 불교계의 편견을 경계했다. 간경수행의 핵심은 ‘알 지(知)’를 ‘지혜 지(智)’로, ‘알 식(識)’을 ‘지혜 혜(慧)’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성상현 법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성상현 법사(71·사진)는 40대 초반,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을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한 스님이 건네준 <금강경>을 보고 의문 후 경전을 공부하게 됐다.

이후 불교 및 법에 대해 <아함경> <능엄경> 등 7부 경전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간경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성 법사는 20년 전 조계종포교사대학에서 <법화경> 첫 강의를 시작한 이후 서운 사찰, 정량사, 자비사 등 전국 30여 사찰에서 경전강의를 했다. 현재는 보림회 법회, 원주 구룡사 불교대학에서 <금강경> 강의 하고 있다.



아파트다 코스

나를 찾아 마시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샘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복관 전회주사는 본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학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9> 거사의 표상 배후

황벽 선사의 시호를 추행(遺行)에서 단제(斷際)로 바꾸게 할 만큼(지난 호에서 자세히 이야기 했다)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배후 거사는 관리로서의 정치행정 능력뿐 아니라 스승과 교단을 의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게다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정법의 안목까지 갖추어 ‘진짜 거사’가 갖춰야 할 것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인물이자(傳)을 강조하는 선수행 풍토가 간경수행을 낮춰보는 불교계의 편견을 경계했다. 간경수행의 핵심은 ‘알 지(知)’를 ‘지혜 지(智)’로, ‘알 식(識)’을 ‘지혜 혜(慧)’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배후 거사도 황벽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안하무인의 아반통이었다. 높은 벼슬자리 그리고 유불서(儒佛書)를 꿰뚫고 있는데다가 선지(禪智)까지 고 있을 무렵이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주위의 말에 배후는 스치는 예감이 있어 한번 빙글을 청하였고 곧 선사와 대면하게 되었다. 그 소문이 나자마자 삼시간에 산중대중이 우루루 몰려왔다.

갑자기 조사방이 범거량하는 곳이 돼 버렸다. 이제 영정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제대로 선사를 모신 법당이 된 것이다. “이 영정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제대로 선사를 모신 법당이 된 것이다. 고승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순간 지켜보던 스님들과 따라 온 수행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과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선사는 큰소리로 태수의 이름을 불렀다. “배상공!”

할은 선사들이 기선을 제압할 때 흔히 쓰던 수법이기도 하다. 아반이 팽팽한 태수를 잡는 방법은 고함이 제일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거사는 귀가 멍멍해졌고 얼떨결에 “예!” 하고 공손하게 대답을 했다. (이럴 때는 더 큰 목소리로 “그렇다면 상



고위직에 유불책 꿰뚫고 禪법갖춰 선지식 행세 황벽 선사와 범거량한 후 제자돼 선종사 빛내

같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선지식 행세를 해왔던 까닭이다.

그가 젊은 시절 신안지방 태수로 있을 때 고고의 대안정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조사방으로 안내되어 ‘국보급’ 영정들의 미술사적 의미를 자랑스럽게 한참동안 침을 튀기며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선기(禪氣)가 발동해 대뜸 물었다. “영정은 불만한테 그 큰스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큰스님들의 마지막 간 곳을 묻는 질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의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말이다. 그러자 말문이 딱 막혀버린 그 스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 안절부절 하였다. “선사님 고위 거사”는 예나 지금이나 스님네를 긴장시킨다.

마침 그 때 황벽 선사는 복건성 황벽산에 모여있던 대중들을 모두 버리고는 대안정사로 들어와 노역하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숨어 살고 있었다. 한 선종의 방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신분마저 숨긴 채 평대중으로 그것도 가장 힘든 하소임을 자청하여 살

공은 어디에 계시오?

고승 간 곳은 그만두고 네 갈 곳이나 격정하라는 말이다. 남의 본래면목은 그만 두고 당신의 제대로 된 모습이나 찾아보라는 말이다. 삼근기의 예리한 태수였기에 그 자리에서 큰절을 울리고 제자가 되었다.

진흙의 양이 많으면 만들어지는 불상 역시 크기 마련이다. 의심이 많을수록 깨달음도 깊어진다 고 했다. 큰 아반은 큰 귀로 이어졌고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기 마련이다. 그는 한눈에 황벽 선사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스승으로 모셨다.

강서성 종무 제2 황벽산에 총림을 마련하고 수행대중이 운집토록 하여 단월로서 외호에도 힘썼다. 그리고 직접 스승의 법문을 정리하고 교강하여 <전선법요> <원통록>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어록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일이 아니다. 황벽선사 어록을 펴낸만한 안목갖춤이 전제돼야 한다. 뒷날 이러한 모든 인연이 무르익어 걸출한 제자임제 선사를 배출하게 된 토양이 된 것이다.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간경수행 포인트는

얼굴 참선 등과 함께 3대 방편문의 하나인 간경수행을 독경(讀經)과 혼동하면 안 된다. 독경은 소리 내어 경전을 읽기만 하는 것인 반면 간경은 소리를 내지 않고 경전을 읽으며 그 뜻을 음미하는 과정을 수행으로 삼는다. 물론 경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과정도 포함된다.

간경수행법을 안내하는 <중원불보론 무상승품>의 ‘십종수지(十種受持)’ 또는 ‘십종전통(十種傳通)’에 따르면, 스승과 배침 △공양 △배품에서 남에게 좀 △다른 이가 읽고 외면 한 마음으로 들음 △자신이 읽음 △자신이 이치대로 이음과 글귀와 맛과 뜻을 취함 △도리 그대로 이음과 글귀와 맛을 나타내 설명함 △바른 마음으로 듣고 읽 △조용한 태서 이치

대로 해야만 스미미 알게 된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뒤야 익힘 등이 있는데, 이 중 수행자는 인연 닿은 법을 선택해 간경수행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간경수행 초심자는 먼저 불교의 기본교리를 담은 <아함경>→<능엄경>→<금강경>→<원각경>→<화엄경>→<법화경>→<열반경> 등의 순서로 간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 천 지 조 화 벽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가요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동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한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지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예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원상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취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